

# 등살을 내보인 현대적 제본

백승덕 | 렉토베르소 (www.rectoverso.co.kr)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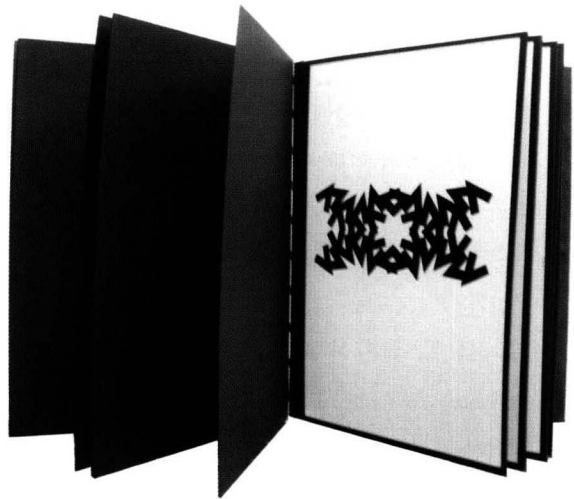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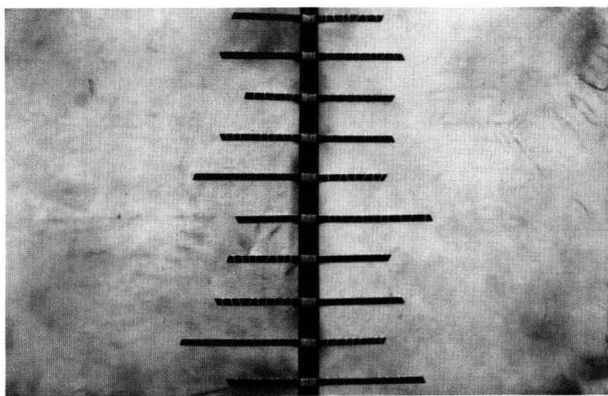
## 등 열린 제본

'등 열린 제본'은 말 그대로 책등을 종이나 가죽 등 그 무엇으로도 감싸지 않은 제본이다. 즉, 텍스트의 한 대수 한 대수가 노출되어 있다. 책등이 둥글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책의 대수는 12, 13대수를 넘지 않아야 하고, 책등이 보이도록 접은 바깥 부분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얇고 현대적인 내용의 책이나 판화, 일러스트 등의 포트폴리오 제작에 적합한 제본이다.

사진 1은 양피지를 이용한 '등 열린 제본'이다.

1. 책등을 위한 도안 원하는 숫자의 끈을 도안하고 꿰매기에 필요한 가죽끈을 만든다. 가죽끈은 염소가죽 뒷면에 튼튼함을 위해 양피지를 배접해 일정한 크기로 자른다.

- 안상수 작품집  
240×310  
양피지를 이용한 등 열린 제본. 소가죽의 뒷면으로 케이스.  
2004
- livres blancs(노트)  
105×150  
보라색 염소가죽의 뒷면을 표지로 사용.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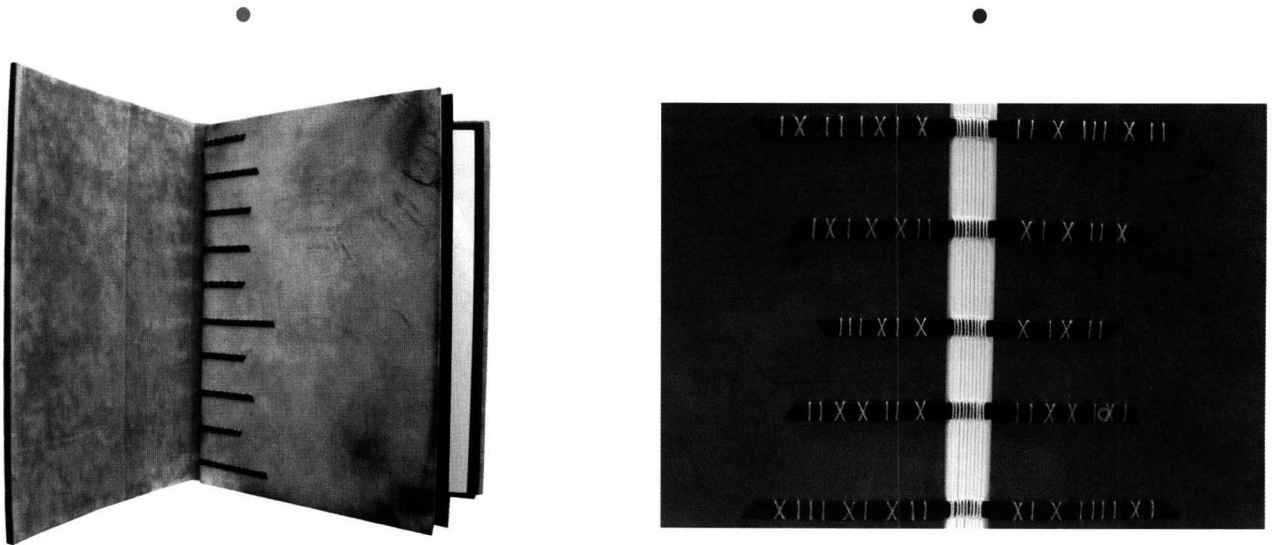


2. 판지갈기 책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판지의 두께는 최소한 2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가장자리를 얇게 저며 준 후 3시간 정도 사포질해 준다. 양피지의 팽팽함을 견디고 휘지 않게 하기 위해 풀의 농담 조절이 중요하다.

- 가치 있는 책을 아름답게, 오랫동안 보존코자 시작된 예.술.재.본. ●● <출판저널>은 텍스트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책의 미적 가치와 보존에 대한 관심 확대를 반영하고 이를 권하는 의미에서 예술패본가 백.순.덕. 씨로부터 다양한 예술패본서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어보려 한다 ●

**3. 표지 준비** 전에 서술했듯, 양피지는 모든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석회수에 담가 추출한 가죽의 외피다. 따라서 아주 질기고 단단해 웬만한 제본에는 적합하지 않다. 풀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양피지의 뒷면을 2시간 정도 사포질해 준다. 양피지 최대의 장점인 투명성을 이용, 얇은 종이를 배접해 준다. 이 종이의 색상이 양피지에 배어나와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

**4. 판지에 구멍뚫기** 22밀리미터, 30밀리미터 두께의 판지에 구멍을 일정한 크기로 잘 뚫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이 구멍에 실이 통과해야 하고 작업이 모두 끝난 후에도 300여 개의 구멍이 일정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량도 엄청 많고 시간도 1개월 가량 소요되었다. 그렇지만 작업 중간 중간의 피로가 오히려 행복하게 느껴지는 제본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제본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제본만큼은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길 권유한다. ☞